

# 제주공항 지하차도 건설 속도 낸다

### 제주시, 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 위해 사업 추진 공항 우회도로 연결구간 중 95m... 내달 실시설계 발주

제주국제공항 일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신설하는 제주공항지하차도 건설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 해소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이달 마무리하고 다음달 발주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오는 2021년 개통예정인 제주공항 지하차도 건설 사업은 제주시 용문로 한진렌터카 제주지점에서 다호마을을 거쳐 현재 건설 중인 제주공항 우회도로(2.2km)와 연결하는 도로

개설 사업이다. 총길이는 900m(양복 4차로)로 이 중 지하차도 구간은 95m이다. 나머지는 지하차도 진·출입을 위한 옹벽구간이다. 지하차도 건설에는 150억원(국비 75억원·지방비 75억원)이 투입된다.

제주시는 도로 개선을 위해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은 90% 가량 완료된 상태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 5월 용담 2동·도두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했다.

제주시는 이번 제주공항지하차도 완공시 제주국제공항주변의 교통체증이 해소돼 교통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종배 도시정비팀장은 "전체 도로 길이는 900m지만 실제 지하차도는 95m로, 해태동산에서 제주공항으로 내려오는 공항로 밑을 옹문로터리 방면에서 오일장 방향으로 관통하는 구간이다. 옹문로터리에서 제주공항으로 가는 방향은 일방통행이 되지만 지하차도에서는 양방향이다"며 "이달 중 용역이 마무리되면 다음달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난 후 8월 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대기자 bigroad@ihalla.com



성산일출봉 관람로 인상 첫날 장마가 이어지며 비 날씨를 보인 1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에서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관람에 나서고 있다. 성산일출봉 관람로는 이날부터 기존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다. 이상국 수습기자

# “대표 기념품 없는 관광제주, 지원도 미흡”

### 도의회 주최 정책토론회서 산업 육성 필요성 등 제언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명품) 부재 지적 속 제주관광기념품 산업의 지속가능 발전 방안으로 제주명품 육성시스템 구축 및 관광기념품 특화거리 조성 필요성이 제안됐다.

1일 제주도의회 제주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주최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관광기념품의 지속가능한 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김형길 (사)제주관광문화산

업진흥원장은 '제주관광기념품 산업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제주 관광기념품 제조업체는 대부분 5인 미만의 소기업들로 구성돼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혁신적인 디자인 개선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제주를 방문하면 꼭 구입해야 할 제주를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이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관광기념품 행재정 지원 실태와 관련 행정체계상 담당부서와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통합적 정책 추진의 어려움이 있고, 담당자의 잦은 이동 등으로 행재정 지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제주지역 관광기념품 잠재 시장 규모에 비해 소량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김 원장은 제주관광기념품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으로 제주관광기념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명품 육성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또 동문시장, 칠성로상점가 일대에 천연염색 등 관광기념품 특화거리 조성, 플라마켓 전문 특화 시장 조성 등 관광기념품 특화거리 조성 필요성도 주장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영어도시 설립 때와 상황 달라... 국제학교 부지 남김지 논의해야”

### 이석문 교육감 취임 1주년 유학·출산율 감소 등 언급 부지 용도 변경 계획 시사 국내에서 첫 도입 'IBDP' 읍면학교 선정 시행 예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영어교육 도시에 남아 있는 3개의 국제학교 부지를 학교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용도 변경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1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에 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교육감을 중심으로 신청했다"며 "이 기회에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부지를 지속적으로 남겨둘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7개의 학교 부지 중 4개 부지에는 제주도교육청이 부지를 매입하고 교육시설을 갖춘 뒤 위탁한 KIS(한국국제학교)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산하 NLCS Jeju(노스런던칼리지잇스쿨 제주), BHA(브랜섬홀아시아), SJA Jeju(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가 들어서 있다. 나머지 3개 부지에도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교육청은 지난 5월 ACS제주(싱가포르 앵글로-차이나이즈 스쿨) 국제학교 설립계획을 불승인하기로 결정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교육감은 "영어교육도시 출범 당시에는 해외유학을 흡수하려는 국가적 목적이 있었고, 이후 해외로 나가는 학생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초저출산과도 맞물려 설립 당시와 10여년이 지난 지금 사회환경이 변화해 계속해서 학교 부지로 남겨둬야 하는지 도민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또 2022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IBDP와 관련해 "9월부터 IBDP 학교를 선정될 텐데, 읍면지역 학교이면서 가능하면 제주시에 면 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근대 교육이 도입된 100년의 역사 이래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큰 변화가 이뤄져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교육'이 제주에서부터 구체화되고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월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스위스 소재 비영리 교육기관인 IBO(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와 협약을 체결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IBDP(국제 바칼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1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간의 교육행정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레아 고등학교 교육프로그램)를 도입하기로 했다. IBDP는 탐구 중심의 학습 주도형 교육과 각 과목 서술형·논술형 평가로 실시하는 국제공인 대학 입학 자격 취득 과정이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은 지난 1년간 유·초·중·고 무상 급식 시대를 열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를 포함한 중·고등학교 무상 교복도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제주교육 공론화 위원회'를 상설 운영해 전면 무상교복의 시행과 더불어 '교복 개선'을 첫 의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공개해야”

### 위성곤 의원 법 개정 추진

전통시장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안전을 향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달 28일 이력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전통시장법'은 시장의 화재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전기·가스·화재 등과 관련한 안전시설물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이용객은 물론 시장상인들도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시에 이를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등의 지원을 위한 현대화사업 우선순위 설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화재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회·부미현기자

# 예래생태축제 프로그램 확정

서귀포시 예래동(동장 강동인)은 오는 27일부터 예래동 소재 논밭물 일원에서 열리는 제19회 예래생태체험 축제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물과 함께 신명나는 해변축제'를 주제로 한 이번 축제는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예래생태체험축제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맨손 낚치잡기, 태극 수영대회, 수중배구, 생태마을 탐방 등이며, 청소년 동아리, 초청가수 하유리와 강유진, 춤추는 색소폰리스트 전현미 등의 공연 등이 마련됐다. 이와함께 어르신 민속경기, 가요제, 생태 답아가기(사생대회), 먹거리 장터 등은 부대행사로 운영된다. 이태은기자

친환경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전통 건축 **선자연**이 실현합니다.

**시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원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후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담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물리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고개속인 남성들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 120627-중-30735호

발기부전치료에 쓰이는  
※원터치자동약품주입기의 장점※

- ▶ 사용 및 휴대가 매우 간편하고 원터치로 약물이 주입되어 통증 및 거부감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 ▶ 기기에 쓰이는 치료약품은 고혈압, 당뇨, 노화에 의한 발기부전 및 암, 수술 후 발생한 발기부전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 ▶ 약물주입시 대부분의 남성들이 발기가 이루어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원터치 자동주입기에 넣어 사용하는 발기부전치료약품은 부적절하게 사용시 발기가오래 지속되는 부작용이 있어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발기부전클리닉 ▶ 조루약품주입법  
▶ 전립선클리닉 ▶ 남성화성기질환 ▶ 요로결석

※ 남성고민 상담 ※

**연세포르테비뇨기과월**  
☎ 064) 724-7575  
터미널 맞은편 제주은행 2F

**의료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20323-중-3624호

**동구치과 의원**  
DONGGU DENTAL CLINIC

일요일도 정상 진료합니다.

원장 **신동구**

중앙신협(신축) 2층 동구치과 의원  
제주대 제주중앙여고 제주지방병원

제주시 이도2동 2007-8  
(중앙여고 입구 맞은편 중앙신협 2층)

☎ 756-2833